

# 시설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에 대한 성경적 접근

김 경 남\*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시설청소년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겪는 불안에 대해 성경적 상담접근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생활시설은 가정에서 다양한 문제로 양육의 제한을 받는 18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집단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과 다른 집단보호 형태 때문에 생기는 특수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그 중에서 시설청소년은 구체적인 진로계획과 실천 없이 18세를 기해 자립 전환을 요청받는다. 일반 청소년들이 가족 지원 가운데 서서히 청소년기 발달과업 성취와 성인기 전환을 준비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일반가정과 차이가 있는 열악한 환경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퇴소 자립을 위한 진로결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 불안은 처음 인간이 지은 죄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불신앙이 근원적 원인이다. 그러므로 시설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과 유한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성경적 정체성이 회복될 때, 진로문제 뿐 아니라 인생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켜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두는 일반 심리학과 구별된다.

따라서 퇴소를 앞둔 시설청소년들이 진로결정 할 때 느끼는 불안에 대해 성경적 상담 접근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주제어:** 아동양육시설, 시설청소년, 진로 미결정, 불안, 성경적 상담

- 
- 논문 투고일: 2019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5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6일

\*동명아동복지센터 임상심리상담원

이 논문은 총신대학교 김경남의 석사학위논문(2013년 2월, 지도교수: 김준)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 I. 여는 글

한국의 아동복지 시설은 한국전쟁 고아와 빈민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입소아동이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IMF 외환위기로 가족이 해체되고 위기가정이 증가되면서 부모가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보호대상자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이운제, 2002).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자립준비를 할 때 가족의 정서와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만 가정환경이 박탈당하여 시설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갑작스럽게 독립을 강요받게 되고 그나마 시설에서 받았던 지원도 퇴소와 함께 모두 중단된다(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약 55%뿐이고, 취업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56%로 이들의 약 1/3정도가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1/3의 정도는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철희, 2002). 이들은 퇴소 후 생활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정서장애나 품행장애 등 사회부적응을 보이기도 하고, 영세민 또는 저소득계층으로 되어 다시 사회보호대상자로 전락하는 문제도 일어난다(강복정, 2000). 만 18세 이후 반드시 자립을 해야 하는 현실은 퇴소 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단기적이거나 임시적이더라도 안정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선택을 어렵게 한다. 최현(1991:86-105)은 “퇴소 후 시설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사회적응 능력과 자립심 때문에 직장을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고 쉽게 직장을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시설청소년들은 열악한 시설보호환경 때문에 자신들의 흥미, 적성, 능력, 의욕, 환경에 알맞은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

으며 교육기회나 사회진출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홍미리, 2005) 시설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적 원인이 가장 핵심적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정희(2008:6-7)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원인으로 자기 효능감, 자아정체감, 불안, 공포불안, 강박증, 우울이라고” 확인하였다. 김원중(1984)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관이 있는 직업 자아정체감 형성 여부에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불안은 진로발달에 필요한 과제를 회피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진로결정에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Krieshok, Black & McKay, 2009). 또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은 정보가 부족하기보다는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불안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불안은 원인과 결과로 진로결정과 관련이 있다(Emmerling & Cherniss, 2003).

변은진(2002:27)은 시설청소년이 열악한 시설환경에 있기 때문에 일반청소년보다 독립적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하지만 의존하는 경향이 일반청소년보다 높다고 하였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및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반청소년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연구들이다. 시설에서는 재정적, 사회적 자립프로그램의 개선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설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의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불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접근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청소년의 상황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불안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격적인 관점에서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의 원인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퇴소 후 인생에서 부딪히는 불안에 대해 성격적 관점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시설청소년에 대한 이해

#### 1) 시설청소년의 시설보호와 퇴소

2010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항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2017년 12월 기준, 아동복지시설 280개소에서 12,789명의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다. 2013 ~ 2017년 5년간 연평균 2,470명이 만 18세 이후 양육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준비를 하게 된다(한국일보, 2019).

아동양육시설의 입소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자의 가출이나 질병 때문에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들이 아동상담소를 통해 입소하게 된다(이순형, 2003).

표갑수(2001:199-200)는 “시설보호의 장점을 첫째, 시설의 생활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동의 억제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통제력을 키우게 하고 둘째,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치료나 특수교육, 직업훈련 등 재활이 가능하다. 셋째, 다른 사람의 권리나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집단 경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집단생활 안에서 건전하게 경쟁심이 생겨 자기 계발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반면 단점으로 지적한 것은 첫째, 충분한 정서적 욕구표현이 부족해서 부정적인 성격이 될 수 있고 둘째, 경제적 제한으로 문화시설인 실제 사회와의 접촉이 부족할 수 있다. 셋째, 과도한 집단생활로 개방적이고 온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다. 넷째, 집단생활의 규칙준수로 개인적 요구수렴이 어려워 갈등이 생겨 자율성과 창의성 발달이 저해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지도원의 높은 이직률로 보호의 지속성과 건강한 애착관계형성이 어렵다. 시설청소년의 환경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정과 다른 집단 보호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부정적 주장이 지배적이다.

시설청소년의 퇴소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해 시설장은 만 18세가 되었거나 아동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될 때 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의 승인과정을 통해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재학생, 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 혹은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 장애 질병이 있는 자등은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김동원, 박인선, 2003).

일반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족의 지원과 지지를 통하여 직업, 결혼, 가족생활, 출산 등이 자율과 독립적으로 천천히 전환되면서 직면된다.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의 전환은 갑작스런 것이 아니다. 또한 성공하지 못할 때 되돌아 갈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전환을 어렵지 않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또한 몇 년에 걸쳐 성인기의 전환이 일어나는 반면 시설청소년의 전환은 짧은 준비 기간 동안 급작스럽게 일어나며 만 18세의 퇴소와 함께 끝난다. 시설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해 결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정적 가치의 기반이 부족뿐 아니라 (Dobson, 1996)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보육사가 자주 바뀜으로써 그 과정을 지켜봐줄 사람들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신혜령, 2001). 이들은 기대되는 전환이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어서 일반 청소년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마저도 시설 청소년들은 퇴소와 함께 이전에 경험했던 지원과 관계가 중단되며 보호의 연속성이 상실되면서 자립전환과 적응이 더 어려워진다. 시설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시설청소년의 자립이 일반 청소년보다 힘든 과정인 것을 전제로 하고 그들과 다른 차원의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퇴소 이전에 시설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진로 준비가 필요하다.

## 2) 시설청소년의 특징

시설청소년의 특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시설 형태에 따라 시설청소년의 특징의 차이를 살펴보는 등 실태조사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있는데, 집단생활에서 보이는 시설청소년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성격적 측면에서 변은영(2007:4)은 시설청소년은 의존성이 강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인이 되어도 의존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의존성은 죄책감이나 부끄러운 감정 없이 다른 도움을 바라기도 한다. 황미정(2009:21-23)은 시설청소년들은 부모가 계시더라도 시설에서 생활을 수용하고 개방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더욱 위선되고 자기주장성이 낮다고 하였다. 조현경(1995:70)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일반 청소년과 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고 하였고, 유안진과 민하영(2001:144-14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대인관계에서 시설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 더 컸다.” 김숙경(2004:229-230)은 이들의 불안정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낙인이 사회적응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자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고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으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최영주(2001:53)는 보육사의 양육태도에 따라 미래에 대해 확신과 목표 지향적이며 주도적이며 자기수용과 주체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정서적 측면에 대해 유광수(2001:39-40)연구에서는 입소기간이 길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다고 하였으며,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우울과 불안, 사고의 문제, 비행, 공격성, 정서의 불안정성, 주의집중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행동적 측면에서 양숙미(2005:143)는 지나치게 짜증나고 수줍어하며 표현력이 부족하며 반면 공격적인 특징도 있으며 주의 산만하고 도벽과 거짓말과 감사할 줄 모르고 의존적이며 게으르고 성취동기가 부족하며 물품낭비가 있다고 하였다. 김용근(2000:21)은 유기로 인한 심리적 불안

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잠재능력을 발휘되기 어렵고 만성적인 공허감과 피해의식이 강해 삶에 만족도가 낮고 부적절한 분노와 파괴 및 지배 욕구 때문에 충동조절이 힘들고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보인다고 하였다.

인지적 특성으로 박경옥과 이경남(2004)은 각 개인에 집중하는 감각적 자극이 부족하고 사회적 접촉이 기회가 적어서 언어 습득의 한계가로 인하여 지적발달과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시설이란 환경은 일반가정과 비교할 때 교육적 또는 문화적 경험의 차이,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한계가 있고, 언어 능력 뿐 아니라 수행과 행동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이강이 외, 2002). 김숙경(2004:229-230)은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고 외부의 평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체념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신의 능력에 비해 낮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설아동들의 인지능력 수준에 대한 연구에서는 언어능력과 주의력의 저하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지능이 낮아지고 학업 성취 등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시사되었다(이선주 외, 2014).

대다수의 연구들이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양육되는 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는 정신적, 행동적 특징에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시설청소년의 특징들은 '시설병(hospitalism)'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정해수, 2000).

이와 같은 불리한 사회 환경과 시설보호의 한계와 더불어 퇴소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설청소년들은 진로결정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게 된다. 또한 퇴소 후 사회생활에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퇴소 전 시설청소년들의 특징들을 충분히 이해하며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하겠다.

## 2. 진로미결정과 불안의 관계

진로미결정의 하위 유형은 크게 발달적 미결정 상태로 결단성이 없는 미결정상태와(*being undecided*)와 만성적으로 우유부단한 무 결정 상태(*being indecisive*)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Callanan & Greenhaus, 1992). 불안수준이 만성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Gorden, 1981) 불안수준은 진로를 결단하는 능력과 작업수행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Kimes & Troth, 1974). 또한 불안 수준이 높으면 정보해석에 오류와 왜곡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업 탐색이 유용하지 않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어 탐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Greenhaus & Sklarew, 1981).

불안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동시에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지·행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청소년들이 퇴소와 자립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청소년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구분하여 그들의 진로결정에 적합한 상담 개입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3. 시설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의 원인

시설청소년의 불안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주로 일반 청소년과 비교한 상대적인 연구이거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따라서 그 연구내용들과 상담현장에서 경험한 시설청소년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아지는데, 외부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유병기, 2010). 이윤경

(199:56)은 고등학생의 불안요인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대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학생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학생보다 불안감이 높았다고 보고한다. 둘째, 완벽 주의적 특징이 있다. 완벽주의자는 높은 기준을 도달할 수 없게 세우고 자신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한다. 또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불안하고 실패를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Burka & Yuen, 2008).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시설청소년들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면서 그에 따른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실천할 수 있는지 의심한다. 또한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불안을 경험한다. 이들은 스스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해야 할 과제조차 피하고자 한다.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조진주, 2018). 셋째, 사회적 지지 지각수준은 수행불안, 상황불안, 문제행동 등의 상관을 보이고, 시설청소년은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동적 문제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홍영미, 2010). 넷째,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Kurt Lewin이 갈등에 의한 불안에 대해 주장한 이론에 의하면,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압력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불안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즉, 바람직하지 않은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생겨서 어느 하나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갈등을 의미한다(최미정, 2008, 재인용). 이 경우는 결정을 못해서 생긴 고민이 불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시설청소년은 퇴소를 앞두고 자신이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사실을 직면하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갈등 상황이 된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

#### 4. 불안에 대한 성경적 고찰과 방안

##### 1) 불안에 대한 성경적 이해

불안에 대해 Collins(1991:84)는 “비신앙적 대표적인 감정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의 심리적인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경과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불안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죄로 인한 불안이다. 인류가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죄의 압박감이며, 유혹을 통해 유입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소망을 잃게 되고 불안한 상태가 된다(강영선, 2008).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워진 온전한 창조물이었지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최초로 인류의 죄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회피한 것이다. 인류의 조상이 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에게도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사 17:10)” 이 때문에 인간은 존재 자체에 근원적인 불안을 느끼며 혼자일 때에도 불안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불안은 켈래야 켈 수 없는 죄의 결과로 사람들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김경아, 2010).

둘째, 불확실한 것에 대한 불안이다. 인간은 확실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미래나 현재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마 6:34)”의 내용과 배경을 미루어 보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으로 미래를 불안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수하에서 꾸준히 훈련시켜 온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진군

을 명령하셨다(강병도, 1989). 여호수아가 느낀 것은 거대한 사명을 맡아서 그것을 잘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래에 다가올 어려움들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낀 것이다.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염려와 불안의 반대는 신앙이다(강병훈, 1990).

셋째, 사람에게 버림당할 것 같은 불안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존하게 된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불안은 우리가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는 데서 생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만 그리스도와와만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불안은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시 55:22)”,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7)”고 하셨다. 사울을 보면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인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 이다(삼상 5:24).” 사울은 백성의 눈밖에 벗어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었다(이은주, 2005).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은 사람들의 거부와 비방과 손해를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대신 자기 뜻을 추구하게 된다. 반면 다윗은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등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중심적인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삼상 17:34-37)”를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지므로 사람 때문에 생기는 불안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이은주, 2005).

## 2) 불안 해소에 대한 성경적 방안

불안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불신해서 생긴 염려 때문

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이며, 불안은 인류가 처음 지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찾아야 한다. 불안에 대한 성경적 방안으로 죄 사함, 사랑, 믿음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죄 사함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말씀에서 볼 때, 모든 인생의 고뇌는 오직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불안의 기원이 하나님에 대항한 범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을 극복하는 관문도 역시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다(강완수, 2002). 죄를 인식하게 된다면 주님께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유인이 된다.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 평안이 찾아 올 수 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은 것을 받아들여도 사탄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계속 공격할 수 있다. 또 다른 쫓대를 향하려고 할 때 죄의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였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아가노라(빌 3:13-14)”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그 일을 하는데 몰두하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이은주, 2005). 둘째, 사랑을 불안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강병훈, 1990).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8)”고 말씀하셨다. 두려움과 불안을 버리는 방법은 사랑을 입는 것이다.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

을 안다고(요일 3:16) 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롬 8:35).”고 말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때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요 14: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불안한 마음을 평안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다. 신앙은 불안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강병훈, 1990). 우리는 어려운 문제로 불안 할 때, 그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것이다(강병훈, 1990).

## 5. 시설청소년의 불안에 대한 성경적 상담의 원리

### 1) 성경적 자아정체감

자아 정체감은 수시로 변하는 자기 평가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는 누구다’라고 인식하는 보편적인 자아개념이라고 볼 때 건강한 자아 정체감은 자신이 인식하는 자아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김준수, 2006). 일반청소년과 시설보호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우관계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절대 모르게 한다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대한 열등감이 상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유안진, 민하영, 2001). 성경적 자아정체감은 우리의 삶을 통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김준수, 2006).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그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서 시설청소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 해 주고 있으며(롬 8:15-16) 시설청소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यो(히 3:1),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시설청소년들은 미래의 진로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2) 신뢰와 순종의 삶

진로결정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설청소년에게 책임의 문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신뢰와 순종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시설청소년들이 진로 결정할 때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관심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의 책임이 아니거나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책임의 부분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부분이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다(황규명, 2008).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미루지 않고 반드시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좀 더 구체적이게 된다. 이 때, 그러한 책임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순종하는 것이 된다(Paul Tripp, 2009). 시설청소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사는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실현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자신 능력 밖의 일과 구분하여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그렇게 사람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 3) 완벽하고자 하는 교만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은 시설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불안을 초래하기도 한다.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으로 높고 지나치게 완고한 기준을 견지하는 경향으로 실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한다(Martin & Richard, 2005).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완벽할 수 없으며 연약하며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시설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직업과 진학할 학과를 결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정하지 못하여 비판하여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다. 또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완벽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망할까 또다시 불안감을 휩싸인다. 사람은 완벽하려고 할수록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불안을 호소하는 시설청소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며(마 8:17),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렘 31:25)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이은혜, 2011).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 12:1)”고 말씀하신다. 청년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이시고 자신이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 4) 고난이 주는 유익

시설청소년들은 퇴소 후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기적이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라도 안정적이길 원한다. 그래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 선택이 어렵고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진로선택을 장기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패로 겪

을 때 느끼는 좌절감과 환경이 어려워질 경우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회피하려고만 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고 고백한 욥처럼 고난을 겪음으로써 더 단단해진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뚜렷한 목적을 두고 허락하신 일이며 고난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황규명, 2008). 그러므로 시설청소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문제와 고난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 5) 감사하는 마음

시설청소년들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양숙미, 2005).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과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현재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고 성경은 말한다. ‘감사’는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항상 그분의 존재와 은혜에 대한 인정인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겠다는 것이다(강병훈, 1990). 시설청소년들에게 감사가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 6. 성격적 상담의 적용과 사례분석

### 1) 사례연구 방법

사례연구는 상황적 맥락 속에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경계 지어진 체계 내에서 관심사례를 탐구하는 연구방법(Creswell, 2007)이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접근의 하나로 연구자는 시간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 원천들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 내 주제들을 보고한다(Creswell, 2007). 본 연구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이라는 공간의 경계와 만 18세를 기하여 퇴소를 앞둔 시간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활용하였다. 서울 B아동양육시설의 퇴소를 6개월 이상 2년 미만을 앞두고, 입소한지 5년 이상 된 시설청소년 남녀 9명을 대상으로 50분씩 10회기 이상 상담한 것 과정을 분석한 것 중, 1명의 연구대상자의 14회기 상담한 과정에 대한 사례분석과 선행 연구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부의 알코올 중독으로 양육이 어려워지자 초등학교 때 시설에 입소한 고등학생으로, 7년을 거주하였고 퇴소를 앞두고 상담을 하게 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전문가도 인정할 만큼 예능에 소질이 있었지만 개인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기보다 숙식이 제공되는 기업이나, 퇴소를 연기하기 위해 전공 상관하지 않고 사이버대학이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작 자기에 대한 이해는 전무했으며 이것은 취직은 물론 대학진학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였다. 연구대상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호의적이고 수용적이기는 하나,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고 의존할 때가 많아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취업을 하려고 해

도 낮은 성적과 취득한 자격증이 없어서 진로결정의 제약이 되었고, 정작 면접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를 반복하며 불안을 호소하였다. 교내 취업시즌이 점점 지나가자 초조해하기만 하고 여러 핑계로 진로준비를 회피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지속되었다. 이같이 연구대상은 퇴소에 대한 불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자 또 불안을 호소하였다.

### 3) 시설청소년 사례분석

본 연구의 주된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자기주장이 약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함’ 등의 42개의 개념과 ‘성격’을 비롯한 13개 하위범주 및 ‘시설청소년의 특징’을 포함한 총 3개 상위범주로 도출되었다. 내용분석을 통해 나타난 개념과 범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1. 시설소년의 특징	1. 성격	-자기주장이 약하고 의사결정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함 -타인에 대한 의존감 높음 -타인에 대한 미안함과 배려가 부족함 -타인의 호의에 대해 감사할 줄 모름
	2. 자아정체감	-자기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에 대하여 생각해 본 경험이 없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에 심하게 위축
	3. 정서 및 행동	-퇴소를 앞두고 매우 조급하고 불안감 호소 -손이나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며 산만함 보임 -숙사 동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함 -과거 도박의 경험이 있음 -휴대폰 게임 등 자기 통제와 조절이 어려움
	4. 인지능력	-언어표현의 한계로 타인과 의사소통의 답답함을 호소 -타인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이해 부족 -부진한 학교성적
2. 진로미결정 불안의 원인	1. 낮은 자존감	-자신감 결여 -타인과 비교에서 오는 열등의식 -부정적 자아 인식 -자기주장이 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

2. 진로미결정 불안의 원인	2. 완벽주의 성향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진로준비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이 높음 -상황 핑계로 준비과정 회피 -자격증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시도조차 하지 않음 -타인의 평가에 예민함
	3. 사회적지지 지각수준	-시설 권위자의 지지에 자신감 회복 -소속되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 호소
	4. 개인 준비부족으로 인한 갈등	-성적 부진과 자격증 미보유로 진학과 취직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선택에 대한 갈등
3. 불안에 대한 성경적 상담	1. 완벽하고자 하는 교만	-불완전한 인간능력의 한계 인식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움 요청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이해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자기책임에 대한 순종(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와 시설 내 활동 스텝 결단)
	2. 성경적 자아정체감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식전환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진로결정 의탁하기 -은사와 달란트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 결단
	3. 신뢰와 순종의 삶	-내담자가 어찌할 수 없는 관심의 부분과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부분에 대한 이해하기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생활 결단
	4. 고난의 유익	-할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경 속 모세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해 -신앙서적 '길갈'을 통한 고난의 이해
	5.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의 인식 부족 -경험을 통하여 삶 가운데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 (1) 시설청소년의 특징

#### ① 성격 특성

내담자는 자기주장이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상담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특징을 보이며 변은영(2007)과 홍봉선(2002)의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주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조언을 그대로 모방하여 따라하려고만 하였다.

학교 동급생이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경우나 인맥을 통해 회사에 쉽게 취직한 친구들의 사례를 말하면서 그저 부러워하기만 하였다. 자신의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존하려는 경향이 었보였다. 취업과 진학 중 한 방향으로 어렵게 결정을 내려도 개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주 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기 일쑤였다.

## ② 자아정체감

내담자는 상담을 시작한 시점에 자기소개서를 기업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담자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내담자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면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고 매우 당황해하며 한참을 머뭇거렸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지만 찾아내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경험이 없을 뿐더러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의 어려움은 물론 면접 볼 때 소심하게 대답한다고 하였다. 반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말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사장님이나 원장님께서 내담자를 따로 불러 진로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특별하게 생각하고 매우 큰 자부심을 가졌다.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도 그분들 뿐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의 지지와 격려를 자신감을 갖게 하고 진로탐색의 활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감이 심하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시설 내 후원활동으로 악기를 배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른 아동에게만 실력에 대해 칭찬을 하고 포상을 하자, 자신도 실력에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원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며 그 차별에 거칠게 불만을 표현하였다. 실제로 내담자는 음악적 재능

을 보여 시설 내·외부에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곤 했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여 피하려고만 하였다. 내담자는 그 분야에 권위가 있는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이고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보여주고 싶다고 하였다. 실력이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서 내담자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의 관심에 민감하고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여 민감하고 자기평가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으로 긍정적 정체감이 결핍되며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시설과 보육사의 수용적인 태도일수록 주제성을 갖고 자기를 수용하며 미래를 확신하며 목표 지향적이며 주도성이 높아진다고 밝힌 유안진과 민하영(2001)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 ③ 정서 및 행동적 특성

내담자는 퇴소를 앞두고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무시한 채 진학과 취직의 선택에만 집중되어 있어 매우 조급해 보였다. 퇴소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탐색하니 대학진학하기에는 성적이 부진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 자격증 하나 취득한 것이 없어 이력서 쓰기에도 제한이 있었다. 그런 현실을 알게 되니 낙심되고 과거가 후회만 된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생긴 무기력은 하교 후에는 게임에만 몰두하거나 불면증 등 이차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퇴소를 앞둔 전형적인 시설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의 특성이다. 내담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다소 느리지만 차분한 말투지만 상담시간 내내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손은 탁자 위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등 산만하고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며 불안정하였다. 주의를 주면 그 순간만 멈추고 다시 반복되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불안한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설의 어린 동생들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감정을 풀었

다. 담당 보육사의 말에 의하면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휩싸여 무기력해지면 시설 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지도를 많이 받게 되고 동생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어릴 적에는 도벽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고 전해주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유광수(2001)과 양숙미(2005)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연구내용을 뒷받침한다.

상담 시간에 음료수 두 개를 들고 오더라도 예의상의 권유도 하지 않고 혼자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내담자와 함께 먹는 캔디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모두 모조리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그 순간 미안한 기색과 함께 멈추지만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또한 시간계획 훈련을 위하여 마련해 준 수첩을 한 주 만에 잃어버리고 와서는 누가 가져간 것 같다며 미안해하지도 않고 심각해지지도 않은 모습이었다. 이는 시설의 물품이 배급제이기 때문에 물건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낭비를 초래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과 무상원조와 쉽게 받은 원조 때문에 의존감이 자라나고 감사하기 쉽지 않다는 정해수(2000)의 연구내용을 뒷받침한다.

#### ④ 인지적 특성

내담자는 스스로 국어실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독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 목록에 넣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주변에서 그것을 위해 독서를 많이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독서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표현이전에 스스로 인식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상담초기 그 부분에 질문하면 질문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담시간 자신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인식하고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안하게 된다며 어휘력의 한계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시설아동의 지적발달과 언어발달에 대한 김선희(2002)와 이선주 외(2014)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 (2) 시설청소년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

### ① 낮은 자존감

내담자는 자신의 가치를 수시로 의심하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동요하며 불안해하였다. 취업이나 진학을 결단하여도 금세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며 위축되었다. 면접을 함께 치른 급우에 대해 ‘뭘 해도 되는 놈’이라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내담자는 어렵게 고등학교 전공과 자신의 성격을 고려하여 직업선택을 하고 면접을 보았으나 면접관이 “경영자를 꿈꾸는 사람은 없는가?”라고 한 것을 듣고서는 자신의 직업선택에 의기소침해하며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고 또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는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시설 청소년의 특징에 대한 이윤경(1999)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 ② 완벽주의 성향

내담자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완벽주의 성향을 보였다.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그것에 대한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도조차 꺼려하였다. 거기다 퇴소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높아야 하며 취득한 자격증도 많아야 한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못 미치는 자신을 돌아보며 무기력해하였다.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뿐 아니라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상담 중간에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안심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지만 떨어질 것이 두려워 걱정만 하고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상담과정 중에도 상담을 위한 과제를 주면 하지

않았다고 미안한 마음에 가져오지 않았다. 또한 안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말끝을 흐리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유를 되면서 과제에 대한 것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압박을 받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조진주(2018)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 ③ 사회적지지 지각수준

내담자는 권위 있는 사람의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 자신의 진로결정에 확신을 하며 자신감을 보이며 안정을 찾아갔다. 이사장님과 원장님의 격려와 조언을 신뢰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학교 취업 담당 선생님께 “너한테 딱 맞는 직장 같다.”라는 평가를 듣고 와서는 다시 자신의 진로선택을 확신하였다.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감소한다고 보고한 홍영미(2010)의 연구와 일치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지와 격려의 효과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내담자는 직장이 멀 경우 혼자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하였다. 퇴소하여도 시설을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안정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하고 학비를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수시로 하였다.

### ④ 개인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갈등

내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퇴소를 앞두고 되자 비로써 자신의 자립 준비정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게 되었다. 성적이 좋지 않고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하여 취직과 진학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생겨 그 중 하나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고민이 뒤늦은 후회와 함께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Kurt Lewin의 갈등과 불안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한다.

## (3) 시설청소년의 불안에 대한 성경적 상담

## ① 완벽하고자 하는 교만

내담자는 퇴소준비를 위한 진로결정 뿐 아니라 학교생활과 시설 내에서도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작하기 전에 실패할 경우를 먼저 생각하고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공 실습시간에도 그 동안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격증 취득은 엄두도 못 내다고 말하였다. 시설의 연말 행사를 위해서 악기연주 연습을 해야 하지만 자신이 연주를 한 후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평가를 미리부터 부정적으로 단정 지었다. 다른 멤버들의 실력을 평가절하하면서 잘 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그 상황을 불평하면서 연습하기보다는 회피하였다. 프로그램 담당선생님은 이 때문에 아동을 책임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아동과 참석여부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내담자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은 자신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자신의 실력에 대하여 평가를 하시는 담당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의 아무추어 시절의 실력을 예상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리스트들과 다시 비교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사고를 직면하게 하였다. 그와 더불어 원래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완벽할 수 없으며,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매순간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요청해야한다고 전하였다. 피조물로서의 불안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하였다. 단 책임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그리고 사람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연습한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보다는 그 과정을 격려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설령 사람들이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들의

평가에 의미를 두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시니까 흐뭇해하실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내담자는 행사가 있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생들을 불러 연습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자격증 준비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② 성경적 자아 정체성

내담자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아픈 곳을 회복했던 어릴 적 기억을 말하였고 “좋은 분인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좋은 이미지에 대해 탐색을 하고 싶었으나 더 이상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영의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내담자 곁에 계신다는 것을 전달하였다. 시설의 운영방침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는 한계가 있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를 전달하고 이것은 내담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양자의 영을 받은 내담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와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하였다. 상담 초기에는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것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학교 친구들도 거의 취직이 되었지만 본인은 수능시험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는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원장님과 학교 진로담당선생님 등 주변 다른 사람들만 의지하던 내담자를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진로에 대하여 도와주세요.”라

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진로를 맡기는 기도를 하며 그 회기 상담시간을 마무리하였다. 내담자는 엔지니어로 직업을 결정하고 회사면접에 참여하였지만 면접관이 경영 관리자를 더 가치 있게 설명하였다고 하면서 의기소침해 하며 다른 직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가지 직업이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가치를 따지기보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할 때 더욱 빛이 나며 가치가 있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내담자는 이 직업이 처음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자격증 준비하면서 적성에 맞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실력을 꾸준히 쌓아서 최고가 되어 시설 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 이후부터는 주변의 이야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는 것은 없었다.

### ③ 신뢰와 순종의 삶

내담자는 퇴소가 가까워질수록 불안은 커지고 마음만 앞서서 조금해보였다.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내담자에 현재 해야 하는 일의 목록과 갖고 있는 고민을 생각나는 대로 적게 하였다.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 형, 밴드부 연습 등 시설에서 주어진 역할, 퇴소 후 해야 할 일,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자기 계발의 필요성, 성공, 학교 실습,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대해 나열하였다. 그것을 다시 ‘내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과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구분하도록 도왔다. 내담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지금 시기에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그 마음을 공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그리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16:3)”말씀을 나누고 ‘내가 해야 할 책임부

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내담자는 가만히 듣더니 불규칙하게 참석하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해보겠다고 예배참석의 의지를 보였다.

#### ④ 고난의 유익

내담자는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실패할 것을 미리 걱정하여 취직을 위한 자기소개서조차 쓰기를 머뭇거렸다. 무엇보다 쓰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떨어질 것 같은 불안과 그 결과에 대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신경이 쓰인다고 하였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부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안내하였다. 더불어 상담사가 도와줄 것을 확인시켰다.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취업담당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해주었다고 하면서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나중에 비록 그 회사 취직은 실패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회사에는 떨어졌지만 걱정했던 것만큼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지 않다고 하였고 다른 회사에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한번 작성해 보니 처음보다 많이 쉽게 써진다고 만족스러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에 취직하여 학교에 나오지 않는 많은 친구들을 보고, 본인은 회사에 지원하여도 계속 떨어지니 상황이 되자 다시 불안해했다. 성경 속 인물 중, 모세의 40년 광야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내담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려면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준비가 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내담자에게 배경을 구체적으

로 설명해주고 좀 더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굳은 심지를 위해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과 내담자의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자 내담자는 책 ‘길갈’ 내용 중 “고난이 자신을 강하게 한다.”고 했던 부분을 기억해냈지만 자신이 처한 의미를 쉽게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한 현실과 모세의 광야생활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상황이 어렵지만 내담자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무엇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난 사실에 집중하였고 그 이후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굽을 탈출하여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것을 소개하였다.

#### ⑤ 감사의 마음

내담자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의 인식은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은 느껴요, 특히 이곳으로 보내시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미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곳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깨달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도 받게 해주시고...”라고 말하였다. 내담자는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간섭하셔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4) 적용 결과

##### 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기 인식

내담자는 버려진 고아처럼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공공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자인 하나님께 자신의 진로문제를 의탁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도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

하기 시작했다. 상담의 종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설과 친척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아쉬움과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모세와 다윗의 성경이야기를 기억하며 혼자가 되는 걱정에서 벗어나 그것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처럼 도우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담자는 불안한 생각이 들 때면 아직 게임을 하게 된다고 낙심한 듯 보였으나 상담자에게 중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때마다 게임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연합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기도할 것을 약속하였다.

### ② 변화를 위한 책임에 대한 인식

내담자는 퇴소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불안을 호소하였지만 그것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내담자가 관심을 갖고 집중한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과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분에 대한 신뢰를 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해야 할 부분에 책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모습이 줄고 부정적인 결과보다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책임에 대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시설에서 열리는 행사에 예전과 같이 피하지 않고 연습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과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또한 시설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시간에 피아노반주까지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자격증 실습시간에도 꾸준히 참석하였고 밤늦게까지 연습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 ③ 주도적인 생활 계획과 실행

내담자는 불안을 느낄 때마다 게임에 과하게 몰두하고 불면증의 양상

을 보였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불면증을 호전되었지만 게임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큰 변화는 불안 때문에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임에만 집중하였던 예전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상담의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 III. 닫는 글

지금까지 시설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안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상담한 결과를 연구하였다. 시설청소년들의 성격 및 정서, 인지 행동과 시설보호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시설청소년들의 진로미결정 원인 중 불안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불안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성경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성경적 상담을 통하여 진로 결정할 때 불안을 느끼는 시설청소년을 어떻게 상담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실제 상담에 적용해 보았다.

아동양육시설에는 가정의 보호가 어려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들이 입소하게 되며,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면 퇴소와 함께 자립을 요구받는다. 시설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개인적인 관심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기 힘들고, 열악한 집단생활 환경 속에서 취업과 진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없이 무조건 퇴소해야 한다. 자립준비에 대하여 개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 때문에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불안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면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지·행동 과정에 작용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제를 설

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불안은 만성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시설청소년들의 특수한 환경과 성격적 특성 때문에 경험 할 수 있는 불안과 청소년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들의 상담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퇴소를 앞둔 시설청소년들의 불안은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갈등,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지지 지각수준,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 되어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성경적 관점에서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처음 지은 죄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생긴 불신앙에서 온다. 성경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 2:1)”고 말씀하신다. 진로를 결정할 때 불안을 경험하는 시설청소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관계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분명히 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통제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에서 평안을 찾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 교회의 영혼 돌봄적 관심을 촉구한다. 지역교회와 연계하여 영유시절부터 성경적 자아정체감과 기독교 세계관 형성을 돕고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퇴소 전 자신의 욕구와 만족 충족을 위한 진로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명을 깨닫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 둘째, 시설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역할과 업무 소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상담이 절실하다.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시설종사자의 역할은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시설종사자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양육방식으로 아동을 통제하려고 할 때 아동들과 갈등이 야기되고 자신의 역할에 회의를 느낀

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과중한 업무와 함께 지속될 때 쉽게 소진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이 종교를 갖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99%가 기독교 사랑으로 설립하였다고 보고하고 있고(김은희, 2006) 기독교 신앙을 가진 73.9%의 시설아동이 시설 설립자나 재단의 종교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노혜련, 장정순, 1998). 그러나 시설의 기독교 세계관이나 종교 활동이 시설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며 기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과의 비교 연구도 전무하다. 이 결과에 성경적 상담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성경적 상담의 영역 확장을 위해 성경적 상담가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 강병도 (1989). **호크마 종합주석:여호수아**. 서울: 기독지혜사.
- 강병훈 (1990). **쉐마 주제별 종합자료 사전 10**. 서울: 성서연구사.
- 강병훈 (1990). **쉐마 주제별 종합자료 사전 11**. 서울: 성서연구사.
- 강병훈 (1990). **쉐마 주제별 종합자료 사전 16**. 서울: 성서연구사.
- 강복정 (2000). 시설청소년을 위한 퇴소준비교육 프로그램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영선 (2008). 노년의 죽음 불안과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목회상담적 연구. 아세아연합신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아 (2010). 청년기 사회불안에 대한 성경적 상담. 총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원, 박인선 (2003). **21C 아동복지와 시설경영**. 서울: 서울시아동복지시설연합회.
- 김숙경 (2004).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실태 및 사례분석. **한국 아동권리학회, 8**, 209-235.
- 김원중 (1984). 진로의식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2006). 시설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수 (2006). **마음의 치유**.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 노혜련, 장정순 (1998). 육아시설 아동의 생활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회지, 6**, 65-92.
- 박경옥, 이경남 (2004).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6**, 1-14.
- 박정희, 이은희 (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 미결정-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20**, 103-123.
- 변은영 (2007). 시설청소년의 퇴소준비 자립 프로그램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은진 (2002).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 불안 및 내외통제

- 성과의 관계.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비교 중심. **한국아동복지학지**, **11**, 90-124.
- 신혜령 (2003). 시설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167-193.
- 양숙미 (2005). 아동중심 놀이치료가 시설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아동복지연구**, **3**, 35-47.
- 유광수 (2001).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의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병기 (2010).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학회지**, **1**, 33-43.
- 유안진, 민하영 (2001).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 **한국아동학회지**, **22**, 133-147.
- 이강이, 성미영, 이순형 (2001).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에 따른 행동문제. **대학가정학회지**, **40**, 57-66.
- 이선주, 조혜수, 오상우 (2014). 양육시설아동들의 인지능력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19**, 303-321.
- 이순형 (200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서울: 학지사.
- 이윤경 (1999).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제 (2002).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5). 청년기 대인 공포증에 대한 성경적 상담. 총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2011). 사회공포증에 대한 이해와 성경적 상담. 총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상섭 (1987). 불안에 대한 심리치료 접근방법의 비교연구. 고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수 (2000). 양육형태에 따른 청소년의 시설병적 특징 비교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주 (2018).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5**, 211-236.
- 조현경 (1995).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정 (2008).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에 대한 성경적 상담. 총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주 (2001). 보육사의 양육태도가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 이용교, 이명목 (1991). 요보호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 86-105.
- 표갑수 (2001).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나눔출판사.
- 홍미리 (2005). 양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봉선 (200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4, 93-125.
- 홍영미. (2010). 시설보호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 187-209.
- 황규명 (2008).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 황미정 (2009). 빈곤청소년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 진로관련 변인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urka, J. B., & Yuen, L. M. (2008).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now*. Cambridge: MADa Capo Life Long.
- Collins, G. R. (1998). *크리스찬 카운슬링* (피현희 역, *Christian counseling*). 서울: 두란노. (원전 1980 출판).
- Corey, G. (1991).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제*(한기태 역,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서울: 성광문화사. (원전 1985 출판).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역, *Qualitative Inquiry and Reserch Design*). 서울: 학지사. (원전 1997 출판).
- Callanan, G. A., & Greenhaus, F. H. (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12-231.
- Emmerling, R. J., & Cherniss, C. (2003).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areer choice pro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153-167.
- Gorden, V. N. (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 Greenhaus, J. H., & Skarew, N. D. (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1), 1-12.
- Kelvin, S. H. (1999). 프로이드 입문(황문수 역, (A)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Sigmund Freud). 서울: 한림미디어. (원전 1999 출판).
- Kimes, H. G., & Torth, W. A. (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277-289.
- Krieshok, T. S., Black, M. D., & McKay, R. A. (2009). Career decision making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275-290.
- Ludy, C. R. (1996). *Educational outcomes of emancipated foster youth A life-course perspectiv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 Martin, A., & Richard, S. (2005). 수줍음과 사회불안의 극복(최병휘 역, *Shyness & social anxiety workbook*).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0 출판).
- Tripp, P. (2009).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황규명 역, *Age of Opportunity*).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원전 1997 출판).

【 Abstract 】

A Biblical Approach to Anxiety  
Affecting Facility youth' Career Decisions

**Kim, Kyung Nam**

DongMyung Child Welfare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ursery youth and to propose a biblical counseling approach to the anxieties affecting their career decisions.

Child care institutions provide collective protection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ho are difficult to take care of at home. Child care institutions adolescents able to receive personal attention and guidance will suddenly be asked to switch to self-reliance at the age of 18 without planning and practice for progress and employment. After leaving the nursery, anxiety about his future is making career decisions more difficult. From the Bible point of view, the root cause of anxiety begins with the sin that mankind has first committed, and arises from distrust in trying to control one's own life without trusting God. Therefore, when God recovers his identity as a master of life and a creation of God, not only his job problems but also his anxiety disappears. This differs from general psychology, which focuses on psychological stability by modifying behavior and drawing positive thoughts and thoughts. Thus,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Bible counseling were applied to adolescents at day care centers who were anxious to decide their course ahead of retirement, and through the actual case analysis, a Bible counseling approach to anxiety was presented.

**Key words:** child care institutions, facility youth, anxiety, career indecision, Biblical counseling